

# 동북아 불교사상사의 전령 - 구법승 제조명

동북아 불교사상사의 전령사인 구법승들의 중국 내 활동과 업적을 한·중 교류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 한·중 불교학자 및 역사학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한국 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과 중국의 서북민족연구중심(주임 쯔우웨이쑤우) 공동주최로 중국 서안시 서대학교에서 4월 1일과 2일 열린 '한·중 불교교류와 서안' 국제학술회회가 그것.

## '한·중 불교교류와 서안' 국제학술회회

이번 대회는 동북아 불교문화의 핵심 지역인 서안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한국의 구법승들에 대한 재조명과 학술적 정보교환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대회에 열린 학술회에서는 서서사범대 루지안푸(盧建福) 교수의 '고려 왕조의 기암불교와 동진한 밀교' 등을 비롯해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중 이목을 집중시킨 2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 중국의 해동구법승에 대한 처우와 인식

## 국가적 경계초월, 차별 없었다

### ◆동국대 김상현 교수

고승전을 비롯한 중국 의 여러 불교사적에는 해동구법승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다. 이것은 고대 구법승들의 활동에 국가적인 경계는 큰 장애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속고승전>은 신라의 <원광전>과 <자장전>, 백제의 <혜현전>을 정전에 수록하고, 부전으로 신라의 안승과 원승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실법사, 인법사, 지황 등에 관한 언급도 있다. <조당집>에는 무염, 홍지, 도윤, 현욱, 순지, 김대비 등 신라 말의 선승 11명의 전을 실고 있다. 설봉의 법을 이은 재운화상 영조(870-947)는 절강에 살았는데, 천왕이 흠모하여 자의를 하사하고 진각이라 호하였다. 북화상 환봉도 설봉의 법을 이어 천주에 살았는데, 천주의 왕태위가 화상을 흠모하여 자의를 하사할 것을 주청하였다. 혜철(785-861)과 홍지도 서당의 법을 이었고, 범일(810-889)은 염관의 법을, 무염(801-888)은



마국의 법을, 도윤(798-868)은 남천의 법을 이었고, 순지(833-?)는 혜적의 법을 이었다. 삼고승전에서 해동승이나 서역승 등의 전기를 서술할 경우에도 심과 중의 어느 한 과에 편입할 뿐, 외국 출신의 승려라고 해서 특별히 별도로 분류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 또 중국에 유학하지 않은 원호를 <송고승전>에 실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고승전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불교사적에서 동이, 도이, 삼한이족, 변양, 동번, 번승 등의 용어를 가끔 사용한 경우가 없지 않지만, 이것이 해동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승전의 분류가 국가적이나 문화적인 경계를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바 있다. 중국에서의 활동했던 해동의 승려로는 경전의 번역에 참여한 경우도 있고, 학승이나 선승도 있었지만, 출신으로 인해 간경이나 수행에 제약은 받은 경우는 찾기 어렵다. 승랑, 원측, 혜초, 무상, 지장 등과 같이 중국에서 그 명성을 크게 떨칠 수 있었던 것도 출신으로 인한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 9~12세기 중·한 불교교류의 각 시기별 특징

## 9~10세기초 구법승 136명

### ◆심서성 사회과학원 천진푸(陳景富) 연구원

중·한 불교교류의 최대 전성기는 4-12세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또 10세기 후반-11세기 9-12세기 중엽(남송선종 유포에 편중된 시기) 12세기 말로 세분화 시킬 수 있다. 10세기 후반-11세기 중국은 대략 북송시기로 한국의 구법승의 숫자는 예전처럼 많지 않았다. 이 시기 구법승의 승려의 대표적 인물로는 의흥, 지종과 의천 등으로 그들은 모두 천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송나라에서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의천은 화엄, 천태 양종의 고승뿐만 아니라 율종, 선종 방편의 대가들과 접촉, 50여 명에 가까운 각 종파의 고승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했다. 9-12세기의 긴 시기 동안 중·한 불교교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중국 남종선이 통일신라와 고려왕조에서 보급돼 잇따라 성행하는데 구법승 시기는 9-10세기 전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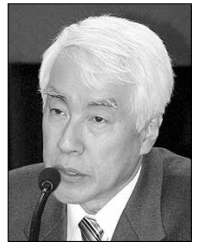


이 시기 구법승들은 136명이며 그 중 73명이 선승이었다. 이 가운데 회양계통이 23명, 청원계통이 35명, 법계가 확실치 않은 선승이 15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선종을 공부하고 귀국했지만 선종 9산은 유일하게 한국불교 특정시기의 산물로 추정된다. 12세기 중엽 중국은 대략 송나라 휘종에서 념종 즉위 초 시기이고, 고려는 숙종에서 신종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 중·한 불교교류 활동은 12세기 초 1, 2차에 걸쳐 거꾸로부터 요란 대장경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당시 중국 내 한국 구법승들의 활동은 '0'이다. 이러한 원인은 송과 금의 대치 등 투쟁의 분란 국면에서 송, 금, 고려 3국은 서로 엄격히 방범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중·한 양국이 불교문화 교류를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양국이 정치상 밀접한 우호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며 경제, 문화의 광범위한 교류 또한 전제조건이었다. 결론적으로 당시 구법승들은 중국 내 불교의 새로운 정보 등을 주의 깊게 수집·흡수·전파해 다시 자국의 실제 상황과 결합시킨 한국 불교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글·사진/서안=노병철 기자

## interview

### ▣ 불교교류사 연구 박사

####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원장



"한·중 불교교류와 서안' 국제학술회회는 중국 전역에 걸친 한국 구법승들에 대한 연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구법승들의 중국 내 활동에 관한 연구'의 2년차 계획 일환으로 추진한 '한·중 불교교류와 서안' 국제학술회회 한국 측 대표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의 말이다.

현재 한국불교연구원은 이 연구를 위해 3개년으로 걸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학술회회와 작년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한 '통일신라 이전의 중국 내 구법승 활동' 국제학술회회 및 내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3개년으로 걸친 '한·중 불교교류와 서안' 국제학술회회 한국 측 대표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의 말이다. 현재 한국불교연구원은 이 연구를 위해 3개년으로 걸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학술회회와 작년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한 '통일신라 이전의 중국 내 구법승 활동' 국제학술회회 및 내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3개년으로 걸친 '한·중 불교교류와 서안' 국제학술회회 한국 측 대표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의 말이다. 현재 한국불교연구원은 이 연구를 위해 3개년으로 걸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학술회회와 작년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한 '통일신라 이전의 중국 내 구법승 활동' 국제학술회회 및 내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3개년으로 걸친 '한·중 불교교류와 서안' 국제학술회회 한국 측 대표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의 말이다.

### 3년내 '교류연구' 성과낼 것

#### 서북민족연구중심 쯔우웨이쑤우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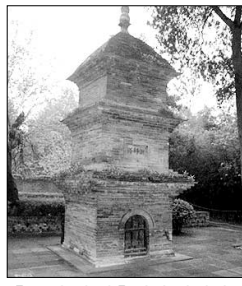
"중국불교사상사와 한국불교사상사는 틀이 아닙니다." 중국 서북민족연구중심 쯔우웨이쑤우(周偉洲) 주임은 양국의 불교사상사는 종교·지역·문화적인 면에서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북민족연구중심은 불교학·이슬람·고대학·지리학 전문 연구진 20여명으로 구성된 불교문화와 불교사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서안은 물론 중국불교학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서안은 불교사상·불교문화가 중앙아시아로 전파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실크로드의 관문은 물론 한·중 불교교류에 있어서도 그 역사와 의미가 남다른 곳이다"며 "이번 학술회회를 계기로 양국 불교문화사적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3년 내 연구·중·한 양국의 불교사적 교류에 대한 전방위적인 연구 성과를 물론 동북아 불교교류사에 대한 한·중·일 국제학술회회 연구단도 발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기사내역 '불교연구'의 과학기술과 불교' 읽는다.

### ■서안과 구법승

중국 심서성 서안은 수·당 시대 중국에서 구법승들의 뜻을 품은 구법승들의 주 무대였다. 서안은 고대 중국 13개 왕조의 도읍지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은 물론 '불교문화 전파의 터미널'과도 같은 곳이었다. 4-14세기 말까지 중국에서 활동한 구법승은 수 천에 이르며



해동구법승사 서안시

### 혜초·원측·자장 스님 효교사 등서 구도행

고종된 구법승만도 300여명에 달한다. 서안 및 중남산 일대에서 활동한 구법승은 약 60여명 정도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고승으로는 혜초, 균여, 원광, 원측, 자장, 혜통 등이 있다. 이들 구법승들의 관련 유적으로는 효교사, 화엄사, 자은사, 천복사 등과 미확인 사찰 및 유적지를 포함해 10여 곳에 이를 것으로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이곳은 가는 곳마다 한국 구법승들의 고귀한 발자국이 아직도 역력하게 느껴진다. 시내 동남쪽 24km 지점의 교외 야산 기슭에 있는 효교사(興教寺), '효교흥국사'라고 쓰여진 벽돌

정문을 들어서면 고색 짙은 대웅전이 나타난다. 경내 오른쪽 벽돌담장 너머 숲에 싸인 고탕 3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가운데 우뚝 솟은 탑이 높이 23m의 현장탑이고 오른쪽은 규기탑, 왼쪽은 원측탑이다. 원측탑은 5층 현장탑 보다 훨씬 낮은 3층 전탑이며 그 주인공은 신라 왕손 출신으로 불화에 일가견을 이룬 원측(613-696) 법사다. 1층 탑신 안에는 법사의 상이 모셔져 있다. 원측은 15세 때 중국에 들어가 서안에서 고승들로부터 수학한 다음 현장법사를 도와 많은 경전을 번역함으로써, 법상종 비조의 한 사람이 되어 불교

의 동방전파에 기여했다. 구역시대 대표적 역경승 구마라집의 사리탑이 있는 초당사(草堂寺), 한국 출신 구법승으로는 신라의 법수가 초당사에서 <신역화엄경전소>를 저술했다고 전해진다. 이외에도 신라의 중풍이 이곳에 주석했다고 한다. 서안 시내에 위치한 자은사와 천복사도 구법승 유적지로 빼놓을 수 없는 명찰이다. 이 사찰은 각각 높이가 40m가 넘는 대인탑과 소인탑이 있어 현재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은사와 천복사는 현장의 문화였던 승장, 신방, 지인, 순경 등이 주석했고, 원측 또한 상당 기간 이곳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병철 기자

<b>(불자정보)</b> ●규격: 5×5cm=50.000원 ●계좌: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 2004-8213~6 (02) 732-1522 (直) ●전송: (02) 737-0696 ●e-mail: jabi1522@empal.com	<b>포교원 안내</b> ●위치: 청주 시내 ●평수: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가액: 2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절충 011-9393-4965	<b>토굴안내</b> ●위치: 전남 완도 ●평수: 4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주차장완비 ●집기일체 몸만오시 됨 ●가액: 5천 5백만원 011-9394-1215	<b>암자터 안내</b> ●위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내리 ●부가옥 30평 대지 370평 ●가액: 평당 80만원 011-299-4465 010-8704-2247	<b>토굴안내</b> ●위치: 경남 하동군 청안면 ●건물: 30평 대지: 약 1천평 ●가액: 1억 5천만원 ●조경, 주차시설 완비 016-9669-7467 055)883-9612	<b>포교당 안내</b> ●위치: 전남 광주 월산동 시내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대지 50평, 건평 30평 ●가액: 1억 8천만원 010-6676-0176	<b>포교당안내</b> ●위치: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법당: 35평 큰방1, 욕상방 3개 ●욕상: 35평 총 60평이상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b>포교당(급)안내</b> ●위치: 부산 동래 온천동 (구 늘봄공원 앞) ●총평수: 약 35평(5층중 4층) ●삼존불, 각단행화, 호불, 연등 포교 최적지(간선 도로변)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스님병환으로 급양도 즉시법회가능 011-871-0004	<b>사찰안내</b> ●위치: 경북 칠곡 ●법당: 15평, 산신각: 8평 부지: 460평 ●심야보일러 ●가액: 1억3천만원 011-511-0926	<b>사찰안내</b> ●위치: 김해 신안사(해동명승도) 우뚝 명당 ●골프장이 그림자 안에 ●미용실, 분거리, 천연야수 사찰입구 경관 영묘원, 남굴당 ●신안사승의 주무관, 고급에측형상중 ●대지: 150평(법당, 요사채 방4개) ●각방 화장실 및 샤워실 ●시세 2억 상당(절충가 임대) 055)323-8337 017-541-9987	<b>포교원안내</b> ●위치: 부산 온천동 식물원 입구 ●33평3층 ●시설완비 051)516-9518 011-579-1357	<b>사찰안내</b> ●위치: 경기도 소재(서로 30년) ●대지: 175평, 법당 30평 ●요사채 현대식(2중건물) ●가액: 3억1천만원 ●특징: 사찰 뒤가 산이고 앞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고 교통편리한 참 좋은 곳입니다 016-510-3455	<b>암자터 안내</b> ●위치: 영남알프스(양산) ●부지: 900여평 (실사용 1500여평) ●건평: 건물 3동 총 80여평 ●1급수 계곡집 2차선도로 인접 ●가액: 4억 010-4878-3531	<b>포교원(급)안내</b> ●위치: 부산 해운대 입구 요지 수비사거리(벤즈코 부근) 지하철 시립미술관 2번 출구 앞 8차선 도로 옆 6층 건물 ●6층 건물(100평),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여유공간 30평 ●몸만 들어오시면 됨 ●가액: 전세 5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 7월세 40만원 011-555-4115
<b>사찰 안내</b> ●위치: 부산 서구 동대신동 숲 울창한 사찰 ●대지: 20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버스 정류장 50m ●가액: 4억7천만원 용자 1억3천만원 있음 016-651-1800 011-870-1463	<b>불자를 위한 전원주택</b> ●위치: 경기 양주 감악산 ●건평 32평 단독신축건물 (방4 거실 주방등) ●즉시입주가능 ●전세 3500만원 ●전원생활을 원하는 부부 또는 예술활동중인 불자환영 016-703-6648 031)867-1801~2	<b>토굴 안내</b> ●위치: 충남 홍성 ●대지: 200평 건평 50평 전 300평 ●가액: 2억2천만원 010-6428-1129	<b>암자터 안내</b> ●위치: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아파트 밀집지역 ●평수: 73평, 시설일체완비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500만원 ●도심포교원 최적지 051)503-0908 019-291-5558	<b>사찰안내</b> ●위치: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전리 ●건물: 611평 2중 건물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27평 ●가액: 2억5천만원 041)932-0533 016-236-0073	<b>사찰안내</b> ●위치: 부산 ●건물: 대웅전 25평, 중각 2평, 산신각 5평, 동양전 3평 ●요사채 6개, 주방 10평 ●실용평수 900평정도, ●주차 30대, 사찰연혁 70년 ●가액: 5억 010-4877-5900	<b>포교원 최적지 안내</b> ●위치: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 7호선 45번 출구 1분거리 총 100평 ●법당: 4층 50평 총무소완비 청동3존불 원만상, 중재관상 2169 ●후원: 4층 50평 주지실, 신도접견실, 객실 2개, 식당 1개, 주방 1개 ●보증금: 1억5천, 월세 관리비 포함 1백8십만원 건물주와 절충가능 ●주지스님 병환으로 급양내,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683-7887